

흠 없는 '정본' 이 뜬실한 출판 이룬다

우리 문학에 '정본'은 손꼽을 정도... 식견 뛰어난 편집자의 안목 필요해

우리 독서문화의 빈곤이 '정전(正典)'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 정전의 부재는 '정본(定本)'의 부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셰익스피어에게는 18세기에도 새뮤얼 존슨이나 에드먼드 멀로우 같은 합리주의를 표방하는 편집자가 있었고, 프랑스 문호들의 작품은 정본으로 확정된 플레야아드판을 통해 읽힌다. 금세기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에게도 막스 브로트라는 명편집자가 바늘에 실가듯 따라다니건만, 우리의 현실은 겨우 손꼽을 정도의 정본이 있을 뿐이다.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조차 허점 투성이다.

교과서 수록 작품들도 틀려

정본은 "작가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손질한 텍스트"(최원식)로 역사주의 비평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역사주의 비평의 한 갈래인 원본비평은 비평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확정하는 작업을 전제로 한다. 확정된 원본을 요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정본인 셈이다.

이상화 시인이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에서 '맨드라미 들마꽃'은 오랜동안 '아주까리 들마'로 와전되어 통용되었다. 김소월의 작품들도 발표당시의 오류가 그대로 쓰이거나 현행 표기법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릇되게 바뀐 경우가 많다. 더욱이 약간 내용을 고치고 제목을 바꿔 두 번 이상 발표한 것을 다른 작품으로 본 오류가 있고 소월의 작품이 아닌 것을 소월의 것인양 착각해 포함시킨 잘못까지 있다. <진달래꽃>에 실린 <실제(失題)>와 동아일보에 발표된 <서로 믿음>이 같은 작품으로 밝혀졌고, 소월시집에 묶였던 일부 작품이 안서 김억의 미발표작으로 판명되기도 했다.

현행 문학교과서들도 오류의 전시장이다. 홍정선 교수(인하대 국문과)의 조사(<고등학교 문학교과서를 통해 본 우리 문학교육의 현주소>, 《문학과사회 1996·겨울》)에 따르면 오류의 유형도 다양하다. ▲시인 고유의 시어를 잘못 교정한 것 ▲원전의 불확정으로 같은 작품이 교과서마다 차이가 나는 것 ▲현대어로 바꾸면서 시어를 틀리게 한 것 ▲사투리를 표준어로 고쳐 의미가 변질

'정본'이 부재하는 우리의

현실은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조차 허점

투성이인데서 드러난다.

최근 정본작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은 걸맞과

눈속임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출판현실을 볼때

바람직한 일이다.

된 것 ▲문장부호나 구두점이 빠진 것 등.

김광규의 <설야>는 시인의 독특한 조어인 '차단-한'을 '찬란한'으로 바뀌었고 정지용의 향수는 첫행의 '어린거린다'가 모두 '어른거린다'로 고쳐져 있다. '그 때에도'로 발표된 이육사의 <꽃>의 한구절은 원본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그 때에도'와 '그 땅에도'로 표기가 분분하다. 시투리를 표준말로 바꿔 의미가 변질된 예는 이육사의 <광야>에서 찾을 수 있다. 발표 당시 첫 연은 "까마득한 날에/하늘이 처음 열리고/어데 닭우는 소리 들렸스랴"였는데, 교과서에서는 '어데'가 '어디'로 바뀌었다. 선부른 표준어 표기는 종족의 방언을 말살하는 처사다.

정본의 부재로 인한 오류는 소설도 시에 못지않다. 지난해 출간된 《한국현대대표소설선》(창작과비평사)은 한국 근대소설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90명의 중단편 165편을 실고 있는데, 소설선으로는 거의 유일한 정본이라 할 만하다. 이 선집의 편집작업을 통해 이본(異本)들의 슬한 잘못을 바로잡았는데, 전권에 걸쳐 대략 1만여 군데에 이른다.

현경준의 <오마리>에서는 '고물사공'과 '아뒤틀사공'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고물사공'과 '아뒤틀사공'으로 고쳤고, 김동리의 <등신불>에서는 오식된 한자를 바로잡았다. <등신불>의 '만적선사 소신성불기'에서 '크게 불은을 느끼고(震撼佛恩)'를 '震撼' 또는 '振撼'으로 엉뚱하게 표기했었다. 근대문학의 초기 작품들은 편집과정에서 오독과 누락이 많아 이광수의 <무명>은 최근의 판본



<백범일지> 영인본과 이본들의 오류를 바로잡아 만든 '정본'들.

에서 1백여자를 바로잡았다.

남다른 공력 요구하는 정본 작업

최근 출간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정본 백범일지》(학민사)는 정본에 관한 논란이 문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도진순 교수(창원대 사학과)의 연구에 의하면, 《백범일지》의 원본은 세 개다. 백범의 친필본 하나와 필사본이 둘 있다. 출간본 역시 세 종류가 있는데 ▲국사원(1947) ▲서문당(1989) ▲학민사(1997)판 등이 그것.

국사원판은 백범 친필본을 기초로 했지만 내용을 큰폭으로 축약했고, 춘원 이광수가 운문한 가담에 읽기는 수월하지만 백범의 고유한 문체는 거세되었다. 서문당판이 나오

기까지 출간된 20여종에 달하는 《백범일지》는 국사원판의 '클론'이다. 두개의 필사본 가운데 하나를 저본으로 삼은 서문당판은 백범 친필본에 가장 근접해 있지만, 필사한 것이라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학민사판은 백범 친필본을 최초로 완전하게 복원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김학민 사장이 이 작업에 착수한 것은 93년 딸에게 사준 책이 중학생에게는 버거운 수준이라 쉬운 《백범일지》를 만들려는 것이 처음 생각이었지만, 기존의 판본을 검토한 결과 잘못이 너무 많아 작업을 접어두게 된다. 김 사장이 작업을 재개한 것은 94년 영인본 《백범일지》(집문당)가 나오면서부터다. 아예 정본을 만들 결심을 하고 필사본을 한

출판은 천박한 문화의 방패

이중환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

천박해진 문화의 회생은

결코 쉽지 않다.

이 천박함을 뒤집는 일은

읽기의 능력에

헌신하는 출판문화의

노력 속에서 가능하다.

출판이 천박한 문화의

방패가 될 수 있음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는 지금, 정치는 수렁에 빠졌고 경제는 침몰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속에 있다. 경제의 윤리는 어차피 기대해 본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치의 도덕은 이 몇년새 그래도 희망을 가져 보았기 때문에, 그 정치 도덕마저 깨어지는 아픔에 더욱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 뿐인가. 실로 더 참담한 것은 문화의 실조이다. 문화는 현재 영양분을 잃은 천박함의 나락으로 떨어져가고 있다. 80년대만 해도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라는 개념의 구분으로 어느 한구석 고급문화가 조금은 있다는 위안을 받았다. 하지만 이 시점 그 고급문화가 무엇이든 사막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연극예술은 마치 스트립 쇼 같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진 한국연극협회는 이 정도는 돼야 벗는 연극도 연극일 수 있다는 좀 나은 작품을 추천하기에 이르렀다. 영화는 'O O부인' 시리즈에 매달려 있다. 영화관에는 스스로 갈 수 없어서 비디오로 팔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등급 외 영화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TV에서는 밤 12시에 남아 있던 단 2개의 문화계 소식 프로그램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 이나마 그 내용의 대부분은 문화가(街) 이야기였다기보다는 연예계 화제였다. 그리고 토크쇼에는 코미디언과 개그맨들만이 MC를 맡고 있다.

고급문화는 민주화되어야 하고, 따라서 어

떤 문화도 보통사람들의 것으로 끌어내리거나 확산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었다. 그래서 루이스 멀포드가 예술의 오용과 남용을 말하면서 비발디의 <사계(四季)>가 엘리베이터용 음악으로 쓰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말할 때, 좀 과한 권위주의 아니냐는 비난을 했던 일도 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문화의 하향이동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

가장 낮은 차원의 TV문화가 있다. 세대(世代)나 연령차마저 목살하고 어느 때는 10대의 놀이터 같고, 어느 때는 20대쯤의 감상문 같은 드라마를 했다 말았다 하는 무례함까지 저지른다. 단지 시간을 매우는 TV문화가 사회문화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일간지와 잡지들, 급기야 출판까지 애써 헌신하고 있다.

하지만 상업주의의 대명사인 할리우드 영화에 대해서도 미국 자신은 끊임없는 반성을 하고 있다. 최근 <뉴스위크>지는 수정판 <스타워즈>가 할리우드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화산업 관계자들의 논평을 보도했다. 특수효과에 치중, 만화같은 단순함으로 영화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근자의 컴퓨터 테크놀로지 영화를 이제는 질타하기 시작한 것이다.

테크놀로지와 그 감각은 사람을 경이롭게 하고 잠시 즐겁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색을 촉발하는 메시지는 없다. 따라서 삶의 어떤 생명력에도 보탬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욱 삶의 질과는 무관하다. 이런 점에서 낮아지는 문화의 천박함은 뻣속까지 병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수렁에 빠진 정치는 신념을 다시 굳힌 국민의 투표로 개선할 수 있다. 침몰하는 경제도 소비자들의 선택과 노동의 결의로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나 천박해진 문화의 회생은 결코 쉽지 않다. 지금 문화의 천박함은 그것이 수요자의 요구라는 이유로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천박함을 뒤집는 일은 읽기의 능력에 헌신하는 출판문화의 노력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출판이 천박한 문화의 방패일 수 있음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

자 한자 훑어 내려갔다. 작은 글자에 집중한 탓에 안경을 쓸 정도로 눈이 나빠졌으나, 영인본이 나온 이듬해 영인본을 풀어쓴 직해본(집문당)이 출간되어 작업이 한결 수월해졌다.

“지난 7~8개월은 오로지 이 작업에만 몰두했다. 일지에 인용된 옛글의 출전 찾기에 골몰하느라 자다가도 별떡 일어날 정도였다.” 식별이 불가능한 한자는 10배로 확대 복사를 떠서 면밀히 뜯어보기도 했다.

도진순 교수도 규장각에서 ‘치하포 사건’ 관련 문서를 검토하다가 <백범일지> 판본 연구에 뛰어든 만큼, 세 개의 원본과 세 종류의 판본이 존재하는 <백범일지>의 결정판을 만드는 작업은 윌리엄 신부와 아드소가 수도원 도서관의 비밀을 추적하는 장면을 방불케 했다.

정본을 만드는 데는 남다른 공력이 필요하다. <한국현대대표소설선>만 해도 각 작품마다 기본이 되는 세 개의 텍스트-▲발표작 ▲단행본 ▲작가 퇴고본-를 정하고, 그것들의 세밀한 비교·검토를 통해 원고를 마련했다. 작가 퇴고본이 있는 것은 퇴고본을 기준으로 최초 발표지면과 일일이 대조한 다음, 다시 그 작품이 묶인 단행본과 대조했다.

제대로 된 정본을 만들려면 문학 또는 해당분야에 대한 높은 식견이 있어야 한다. 쉬운 예로 내용이 둔갑한 경우가 유난히 많은 남·월북 작가나 동반자 작가의 작품들은 이에 대한 감식안이 있어야 한다. 일제의 검열 때문에 다방에서 군인이 들어오는 장면이 누락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나 개화한 훈장이 신식학교에서 ‘윌리엄 텔’을 가르친다는 내용이 북한에서 나온 송영의 <월파선생>에는 ‘양반전’을 가르친다는 내용으로 뒤바뀐 것은 본래의 의미를 훼손한 것이다. 유진오의 <여직공>이나 최정희의 <풍류잡히는 마을>도 처음 발표되었을 때 상당한 계급의식을 띠었던 대목이 작가의 작품집에 묶일 때는 모두 맛맞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정도를 걸어야 생존 가능

숙련된 편집능력도 정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 문학을 보는 안목에다 도통할 정

도의 교정 능력을 갖춘 편집자가 있어야 정본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30여년간 편집자의 외길을 걸어온 정해림씨(58, 현대실학사 대표)는 정본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다. 우리 출판에서 정본이라 이름하는 것들은 거개가 ‘정해림판’이다. <정본 백범일지>도 ‘정해림식’으로 만들어진 만큼.

<현대대표소설선>에 실린 <속 습작실에서>의 오류교정은 정해림판의 신뢰도를 한껏 드높인 증거. 한줄 건너뛰어 엉뚱하게 박혀있는 글자를 절묘하게 제위치로 돌려놓았다.

‘교정후기’라는 독특한 해설이 붙어 있는 <임격정>(사계절, 1991)이나 <삼대>(창작과비평사, 1993) 말고도 <한용운전집>을 비롯한 신구문화사의 책들과 <역주 목민심서>같은 창작과비평사의 책들에는 그의 손길이 실려 있다. 그런 그가 원숙한 솜씨로 빚어내는 현대실학사의 책들은 한국출판의 ‘진경’이다.

“이제는 정도를 걸어야만 살아남는다”는 정씨의 말은 감각적이고 즉물적인 출판에 몰두해 있는 후배 출판인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다.

다리가 끊어지고 백화점이 무너지는 사회에서 흠결없는 정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려운 여건에서 출판인의 소명 의식에 의존한 정보작업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의 고립분산적인 작업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정보 작업은 지난 ‘문학의 해’의 역점사업이 됐어야 했다”고 창작과비평사 최원석 주간은 지적한다. 정해림씨는 “후세에 남길 만한 작품을 가려 본격적인 정보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현대대표소설선>이 올해 한국출판문화상 전집 부문 출판상을 수상하고, <정본 백범일지>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정보 작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겉멋에 의존한 눈속임이 출판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한, 정보 작업은 후손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다.

— 최성일 기자